

미래컴퍼니

(049950/Not Rated)

세계는 넓고, 팔 곳은 많다: 수술 로봇 첫 해외 수주!

- 미래컴퍼니, 수술로봇 첫 해외 수주 달성
- Analyst's Insight: 높아진 Re-rating 가능성

미래컴퍼니, 수술로봇 첫 해외 수주 달성

- 당사는 2019년 4월 23일, 카자흐스탄의 KMG(현지 Distributor)사와 복강경 수술로봇(레보아 이) 2대의 판매계약 체결을 발표함. 이로 인해 동사의 주가는 **전일대비 12.92% 상승함**(종가 기준).

Analyst's Insight: 높아진 Re-rating 가능성

- 현재 동사의 기업가치는 5,500억원수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은 12개월 FWD P/E 기준 19.7배 수준. 주력사업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업체치고는 높은 밸류에이션(Peer 평균 10배 수준)이며, 신사업(수술로봇/3D센싱)을 고려하여 로봇자동화업체(Peer 평균 29~30배)로 보기에겐 디스카운트 된 수치.

- 동사의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는 신사업 특히 **수술로봇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함**.

-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부문의 영업가치(업계 평균 P/E 10x 적용)를 3,000억원으로 가정할 때, 동사의 수술로봇에 대한 가치는 국내최초 수술로봇 판매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고 9,500억원(P/E 42.7배)까지 형성되었다가, 모멘텀 소멸과 추가 수주 지연으로 최저 850억원(P/E 12.4배)까지 하락하였음. 현재 수술로봇 가치는 약 2,500억원 수준(P/E 19.7배).

- 이번 수주로 중소형 병원과 해외병원 수주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음. 특히 이번 수주는 해외 시장 확대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침투가능시장(TAM)이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동사의 수술로봇 전략은 대형병원 시장(High-end)에서 글로벌 경쟁사와의 직접 경쟁하는 것보다는 단위 수술비용을 42%절감하여 대형병원만 고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병원과 해외시장으로 침투가능시장(TAM)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

- 정부는 지난 3월, “로봇산업 발전방안”에서 수술로봇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이번 수주도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과 함께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수술로봇 지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또한, **국내 임상시험 파트너 병원**에서도 동사 수술로봇 도입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노출함.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및 해외의 수술로봇 추가 수주 가능성은 높은 상황.

- 동사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여짐. 과거 수술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때를 복기해보면, 주가 변동성이 높았기 때문. 특히 추가 수주가 빠른 시일내에 발생한다면, 기업가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로봇자동화업체로 가치평가가 가능할 수 있음.

미래컴퍼니

세계는 넓고, 팔 곳은 많다: 수술 로봇 첫 해외 수주!

투자익전 비율

매수(매수)	Trading Buy(매수)	중립(중립)	비중축소(매도)
83.52%	8.24%	8.24%	0.00%

* 2019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미래컴퍼니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을 위한 신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